

신당 '공천 룰' 살바싸움 시작

새정치 "배심원 공론조사" 주장

민주당, 당원 배제 경선엔 난색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6·4 지방선거 공천 규정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통합을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방식으로 최적·최강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서로 처지에 맞는 유리한 공천물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방식은 신당추진단 산하 당원당규분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측 관계자는 11일 "우리 쪽이 당원 구조가 완성되지 않아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새정치연합을 배려해 '당원 50% + 일반시민 50%' 투표 방식의 기존 경선 규정을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신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측 당원당규분과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자체 공천물이 있지만 우리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을래 사무총장도 "새정치연합은 아직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것은 어렵다"며 "새정치연합 측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측 당원당규분과 관계자는 또 "공천물은 향후 공직선거에 계속 적용되는 경우와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나눠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고려,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뒤흠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배심원을 활용한 공론조사 방식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조사란 객관적인 기준으로 배심원을 골라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한 뒤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직동원 우려와 '인기투표' 전락 가능성 등 일반

여론조사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측 윤장현 공동위원장과 이석형 전 합평군수는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방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방법에 대한 찬성 목소리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패널을 선출하고 한 자리에 모여 후보를 판단하는 '숙의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고, 인천시장에 출마표를 던진 문병호 의원도 "전국대의원 50%, 국민배심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공론조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측 후보들은 당원을 완전히 배제한 경선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민주당 이낙연·주승용 의원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간첩사건 증거 조작' 혐의 방문

국회 정보와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국동 국가정보원을 향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정청래, 신경민, 김현, 진선준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당 23일 창당대회...당명 16일 발기인 대회서 확정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6일 오후 통합신당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연 뒤 23일엔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 신당추진단 공동대변인인 민주당 박광온,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당 창당은 3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각각 300여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선정됐던 새정치연합 발기

인 374명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도 비슷한 숫자를 맞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6명 전원과 고문단, 당무위원이 모두 신당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양측은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신당 창당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5개 시·도당의 창당대회를 각각 개최한 뒤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이날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까지 창당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당 명칭은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 공모와 전문가 제안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직접 제안을 통해 당명을 응모해 16일 발기인 대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

김영록 "캐나다산 쇠고기 축산농 타격" 우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1일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는 우리나라 쇠고기가격의 30%에 불과하고 40%의 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 이하"면서 "관세인하에다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쇠고기시장은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우도 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하여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축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장현, 광주지역 대학 순회 강연 실시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윤장현 새정치연합 추진위원장이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을 돌며 순회 강연을 실시, 대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윤 위원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12일 광주대 학생 200여 명과 만난다. 윤 위원장은 광주대 기획처 초청으로 이날 오전 광주대 호실관 3층 소강당에서 '청년이어, 소를 삼켜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대는 청년다운 기상과 상상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이어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도 대학생들과 친밀한 만남의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민호,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규탄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광주 국정원 앞에서 열린 광주시국회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규탄대회'에서 "불법 선거 개입, 간첩조작, 내란조작의 주범 국정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국정원이 간첩조작사건에 검찰을 동원하고 재판부를 기만하면서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국가조작원'이 되어버렸다"며 "국정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선거 대신 부패 선거, 종북 프레임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경중 "광산구, 으뜸 교육도시 만들겠다"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송경중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11일 신가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광산을 '우름 교육도시'로 만들어야 광산의 미래가 있다"며 인프라 확충과 광산교육청 신설을 주장했다.



송 부의장은 "광산은 수완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들어서며, 인구 40만 시대로 함께 유·초·중·고등학교 7만5142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교육서비스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산구 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교육하기 좋은 '우름 교육도시 광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광산교육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일, 여주시장 출마 공식 선언

통합진보당 김상일 여주시의원이 11일 여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농어민·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로 모두가 행복한 내 고향 여수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청렴함과 열정으로 서민이 진정 행복할 '50만 인구 복지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여수산단 특별법 관철 ▲농업예산 2배 증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표찬,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표찬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내 쓰레기 반입 출구 앞에서 시의원 서구 제2선거구 출마를 선언한다.



표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상무지구의 최대 현안인 소각장 이전을 위해 10여년 동안 수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에 봉착해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소각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의 명령을 받들어 시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표 예비후보는 상무소각장 주민협의체 감시원 및 위원, 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전남도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최권일·김형화 기자 cki@kwangju.co.kr

김황식 전 총리 "14일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 선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체류중인 김 전 총리는 10일 (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신뢰외교와 한 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정치 출마 선언은 한국

에 가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쪽(출마하는 쪽)으로 생각을 거의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 뛰어들다는 것이, 가족들도 어려워하고 나 자신도 용기가 필요한 대목이었으나 주변에서 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며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법률·행정·정치 문제에 관해 나만큼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법관으로 임용돼 2005~2008년 대법관을 지냈으며, 2008~2010년 감사원장, 2010~2013년 국무총리로 재직했다.

/*연합뉴스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공동본점 227-4474
금호지점 383-4474
홍암지점 653-4474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